■지옥의 가자 지구

쥐·개들이 시체 뜯어 먹어
전기 끊기고 마실 물 고갈
적십자 "의료진 발포" 비난

쥐와 개들이 시체들을 뜯어먹는다. 그렇지만, 이를 보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름째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가자지구의 참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가자지구 알-쿼즈병원 의료진인 하잇탐 아드그하이르는 이처럼 시체를 쥐와 개들이 뜯어먹는 것을 동료들이 봤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시체는 물론 부상자들도 수일 이상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 15일간 이스라엘의 계속된 공격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가자지구 내 400여명의 의료진들은 매일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의료진 21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했다. 또 11대의 앰뷸런스가 파괴됐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구호요원들의 부상자 접근을 이스라엘이 지연시키고, 이스라엘군이 앰뷸런스를 움직이는 의료진을 향해 발포하기도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전투 상황이 허락하는 한 앰뷸런스 이동을 촉진시키고 있다면서 고의로 구호요원들에 대해 발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현재 의료진의 피해를 줄이려고 적십자측은 이스라엘측과 휴대전화로 구급차 이동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고 있고, 팔레스타인 측과도 채널을 구축 중이다.

하지만, 구호 요원들이 느끼는 위협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또 이스라엘군과 부상자 수송을 위한 협의가 지연되면서 수일이 지나도록 부상자를 수송조차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의료진들은 악몽, 가위눌림을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에너지, 상수도, 의료 인프라는 거의 붕괴에 가까운 상황이고, 병원은 의료품과 중환자 수용시설 부족 등에 허덕이고 있다. 또 가자지구의 유일한 발전소가 석유 부족으로 발전을 중단하면서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고, 절반 정도의 가구에는 물도 공급되지 않고 있다. 2만1천여명이 집을 떠나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 등 피난처에 머물고 있고, 휴대전화의 80~90%가 불통이라고 BBC는 전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군 탱크가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접경지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지상전 확대" 선언

유엔 '휴전 결의' 거부…가자지구 맹폭 민간인 희생자 발생

이스라엘이 유엔 안보리의 휴전 결의를 거부하고 난 후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개전 보름째인 지난 10일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무기 밀수용 땅굴과 은닉 무기고, 무기제조창 등을 대상으로 40여 차례 공습을 벌였다고 군 대변인이 전했다.

이스라엘 지상군은 또 가자지구 북부의 최대도시 '가자시티' 외곽에서 하마스 무장조직과 치열한 교전을 벌여 무장대원 15명 이상을 사살했다고 군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스라엘군의 한 고위 지휘관은 이날 작전 중에 하마스 무장조직 '이제딘 알-카삼' 여단의 로켓부대장인 아미르 만시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고 일간 예루살렘포스트 등에 전했다.

이 지휘관은 이번 지상 작전을 개시한 이후 사살한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수가 최소 300명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오후에는 가자지구 주민에게 공세를 강화할 것을 경고하는 전단을 살포했다.

이스라엘은 아랍어로 된 전단에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 작전을 강화할 것이다"며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주민이 아닌 하마스와 테러범을 상대로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증파하는 '3단계 작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정식 승인이 나지는 않은 상태라고 국방부 관리가 AP 통신에 말했다.

가자지구 의료진은 이날 이스라엘 탱크에서 발사된 포탄에 북부 자발리야 마을의 한 가정집 뜰에 모여 있던 팔레스타인인 9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 9명의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 2명과 여성 2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개전 이후 민간인을 목표로 삼아 공격한 적이 없다며 관련 사건의 책임을 부인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7일 안보내각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휴전 결의를 거부하고 하마스에 대한 지상작전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하마스도 유엔의 결의를 거부한다고 밝히면서도 휴전 중재국인 이집트에 대표단을 파견, 휴전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확인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이스라엘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인은 어린이 270명을 포함해 최소 854명이 숨졌고, 3천490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장병 10명과 민간인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

러-EU, 가스 공급 검증서 합의

유럽 '가스대란' 타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가스 분쟁으로 촉발된 유럽의 가스대란이 종식되게 됐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은 11일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지역으로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검증을 위해 EU가 주도하는 감시단 구성을 골자로 한 의정서에 서명했다.

앞서 러시아는 전날 오전 EU와 같은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지역으로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나서 발생한 동유럽 및 중부유럽 지역의 가스대란 사태가 조만간 끝날 전망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EU 간에 합의된 검증 의정서는 유럽행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우크라이나 측이 중간에 빼돌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EU 감시단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EU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체코의 미렉 토폴라넥 총리가 러시아와 모스크바를 오가며 벌인 셔틀 중재 끝에 성사됐다. /연합뉴스

오바마, 취임 전날 '政敵과 만찬'

"당파 초월 리더십 필요"
매케인 등과 저녁식사

오바마〈사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전날인 19일 저녁 지난 해 미 대선 경쟁자였던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식사를 함께할 예정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금과 같이 커다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한 시기에는 구시대의 편협한 당파성을 뛰어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라이벌과의 만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취임 전야에 매케인 이외에도 대선 기간 자신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혔던 공화당 정부출신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조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과도 각각 만찬회동을 갖는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들 3명의 훌륭한 분들은 평생을 나라를 위한 봉사로 바쳤고, 모든 순간마다 정파적 이슈에 앞서 미국의 이익을 앞세웠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있어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당선인의 이 같은 행보는 취임 초부터 경제위기를 초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케인은 전날 폭스뉴스에 출연, "오바마 당선인처럼 수많은 도전 과제를 떠안고 취임하는 대통령은 역사에서 그리 흔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오바마 당선인과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의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수생의 입학과 꿈을 현실시켜 주는 광주입성학원
2010학년도 대수능 재수생 종합반 모집안내
대수능 선행학습반 모집 중
대수능 정규종합 최고반 모집
소수정예 6인별 모집
광주 입성학원

중국어(中國語)로
한국 중국
대학 입학하기
대학을 디자인 해드립니다~!!
리틀차이나 中國語學院
www.littlechina.co.kr

2009학년도 9월 中國 명문대학 정규과 입학반 모집
◆ 2009 중국대학 입학생 우선모집
북경대 청화대 입시준비반
한국외국어대학 수시입학준비반
중국어 교육의 선두주자
리틀차이나 중국어전문학원
겨울방학특강 大개강